

【우리 시의 향기】

시와 방언

유종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노고지리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고 한글을 깨치고 나서 처음 읽은 책이 방정환의 동화집과 함께 이원수, 박영종의 동요집이었다. 박영종의 “초록별”은 지질이 좋았는데 근자에 구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구경을 못하고 있다. 박영종이 시인 박목월의 본명임을 나는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이원수의 “종달새”는 지질이 좋지 않은 시커먼 재생지로 되었는데 두께도 “초록별”에 비해서는 얇은 것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종달새는 아주 흔하디 흔한 새였다. 봄철에 보리밭에 가면 으레 종달새가 떠있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새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고향쪽에서는 흔히 노고지리라 했다. 별명으로도 많이 써서 말이 많고 조금 시끄러운 사람에게 노고지리란 별명이 따라 붙었다. 그 흔하디 흔했던 종달새 소리로 요즘엔 여간해서는 듣기가 어렵게 되었다. 시골에 가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원수의 “종달새”는 이렇게 시작된다.

종달새, 종달새
너 어디서 우느냐.
보오얀 봄 하늘에
봐도 봐도 없건만
—비일 비일 종종종
비일 비일 종종종

종달새 소리를 “비일 비일 종종종”이라 한 것은 이원수의 창이다. 정지용이 “지리 지리 지리리”라고 한 것과 대조가 된다. 그러나 보아도 보아도 종달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얼마쯤 거리가 멀다. 보리밭에서 올라갔다 내려 갔다 하는 종달새의 모습은 곧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얼마 후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를 접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종달새보다는 노고지리가 더 그 새에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쪽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점을 떠나서도 무엇인가 어감(語感)상으로 느긋하고 그 울음소리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낳은 상기 아니 일었느니
재넘어 사래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니

사전에는 노고지리가 옛 말로 취급되어 종다리를 일단 표준말로 지정하고 있다. “셋별 지자 종다리 뗏다”는 옛 시조의 말이 표준말인 셈이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노고지리가 엄연히 현대에도 쓰였다. 현대시에서도 자주 보이는 말이다. 대체로 동요나 동시에서 종달새라고 하는 반면 어른들의 시에서는 노고지리라고 쓰이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통계상으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 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녀를 살게 하라

—조지훈, “마음의 태양”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마리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었습니다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김수영, “푸른 하늘을”

모빠상의 단편 “목걸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교부 장관의 초대를 받고 하위직 공무원의 아내가 친구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가지고 만찬에 참가한다. 그렇지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 꼭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빗으로 사서 돌려주고 그 빗을 갚기 위해 10년이란 세월을 보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걸이는 싸구려 가짜였다. 10년 간 헛수고를 하며 젊음을 탕진한 것이다. 맨 처음 초대장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입과 갈 옷이 없다고 푸념하였다. 남편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고 그녀는 4백 프랑이면 쓸만한 것을 사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남편은 친구와 함께 일요일 종달새 사냥을 다닐 요량으로 엽총을 사기 위해 저축한 돈이 마침 4백 프랑 정도 있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프랑스에서는 종달새 사냥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일본에는 종달새 소리를 내는 “종다리 피리”

란 피리가 있다. 종다리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어 두고 새소리를 들은 것이다. 멘델스존의 “종달새의 노래”란 합창곡을 들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깔나무

책을 통해서 나무 이름이나 꽃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흔할 것이다. 이깔나무라는 말도 책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다. 파인 김동환의 동시를 통해서이다. 동시이지만 김동환의 작품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윗길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소박하면서도 네 계절의 정취가 살아 있다.

호박밭에 노랑 호박 엮디고
뒷장태에 보름달이 이깔나무에 걸쳐 있고
국화꽃도 한숨 쉬며 툭툭 떨어지는
그런 가을이 오면 도련님 당신은 울겠지요

—김동환, “도련님 당신은”

해방 전에 함경도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 교사가 이북에서는 낙엽송을 이깔나무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중학시절에 들은 적이 있다. 아마 식목일이 되어서 나무 얘기를 하던 차에 지나가는 투로 말했을 것이다. 순간 김동환의 동시가 떠오르며 오랫동안 이름만 알고 지낸 나무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였다. 그래서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을 보면 낙엽송을 이깔나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낙엽송과 이깔나무는 학명(學名)이 서로 다른 별개의 나무라고 되어 있다. 낙엽송이나 이깔나무나 전나무과에 달린 낙엽 큰 키나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낙엽송은 키 20미터에 이르고 직경이 1 미터까지 되지만

이깔나무는 높이가 3미터 가량이라고 되어 있다. 낙엽송은 주로 인공림에 심는 것이고 이깔나무는 깊은 산이나 고원에 자생하는 것으로 백두산

기슭 일대에는 이깔나무 바다가 되어 있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이깔나무는 꽃이 5월에 피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낙엽송과 비슷하지만 키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나무나 꽃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낙엽송은 신록때 특히 잎새가 상쾌하리만큼 곱다. 그것은 박두진의 시 “낙엽송”의 첫 대목에 잘 나타나 있다.

가지마다 파아란 하늘을
바꿨었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옴다.

—봉선화

해방이 되고 나서 처음 배운 우리 노래는 “고향의 봄”, “새 나라의 어린이” 같은 동요였다. 그러다가 음악을 좋아하는 교사가 있어 홍난파의 “봉숭아”, “성불사의 밤”, “금강에 살으리랴다”, “옛동산에 올라” 등을 가르쳐 주었다. 해방 직전 학교에서 밤낮 일본 군가만을 불렀던 터여서 홍난파의 가곡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했던 그의 가곡은 그 시절의 우리에게서 행복의 예감이기도 하였다. “봉숭아”는 그 애조가 호소적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비근하고 낮익은 꽃이었기 때문에 더욱 호소적이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분명 한자어인 봉선화(鳳仙花)에서 왔지만 우리는 그 토착화된 발음일터인 “봉숭아”로 배웠다. 당시 봉숭아를 일단 표준말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수미도 “봉숭아”로 노래하고 있는데 2절까지만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때엔 3절까지 다 배웠다. 음반 일면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해방 이전의 노래는 대체로 3절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

울밑에 선 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술술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보다 늙어졌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 한설 찬 바람에 네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일제시대에 씌어진 시나 노랫말을 식민지 상황에 대한 숨겨진 비유로 읽는 관행이 우리에게 있다. 타당한 경우도 있고 때로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코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봉숭아”의 가사도 식민지 상황에 대한 비유로 읽었기 때문에 그 빈약함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흥난파가 바이올린 소품으로 작곡을 했다가 나중에 가곡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봉숭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별로 애창되는 바가 없다. 좋아들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또래 세대만 하더라도 각별한 감회를 금할 수 없는 우리의 명곡이다. 뒷날 이 곡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실포니아 콘체르탄테 K 364” 2악장의 도입부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안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필자의 경우 채동선의 “고향”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우리 가곡이기도 하다.

울밑에 선 봉선화를
노래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가
울밑에 선 봉숭아가 될 때까지
불렀습니다.

—이홍우, “울밑에 선 봉선화” 전문

앞에서 적었듯이 우리 또래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엔 ‘울밑에 선 봉숭아’로

배웠다. 그러나 조금 앞선 연배들은 ‘울밑에 선 봉선화’로 불렸을 것이다. ‘봉선화’로 불릴 때 불러 슬펐던 그 애창곡을 ‘봉숭아’로 고쳐 부를 때 까지 애창하였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말을 바꾸면 해방 전에 불렀던 애창곡을 해방 후에도 불렀다는 얘기가 된다. 언뜻 보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시에는 한 시대 소년기의 구차하고 메말랐던 역사가 담겨 있다. 잔잔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실감나는 소품이다. 그리고 위에 적은 배경을 알아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육이오 전에 나온 교과서에는 또 김상옥(金相沃)의 시조 “봉숭아”가 중학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했다. 그의 시집에는 “봉선화”로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봉숭아”로 배웠다고 기억한다.

비오자 장독간에 봉숭아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 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듯 힘줄만이 서노나

시조에 관한 한 이 “봉숭아”는 김상옥의 대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던 옛날의 관습이 사라지면서 이 작품 고유의 호소력도 사라져 가는 것으로 보인다. 봉숭아나 파리 혹은 백일홍을 장독간이나 울밑에 심던 관습도 점점 사라져 간다. 봉숭아를 모르는 아이들도 많다. 화초를 각별히 중시하지 않는 시골 오막살이 주민들도 봉숭아만은 꼭 심어 두었다. 김춘수의 “부재(不在)”에 나오는 대목은 한때 시골집의 전형적인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없이 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모더니스트들은 봉숭아나 제비꽃이나 민들레꽃 같은
것을 노래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골의 초가집이나 들판에 어울리는 꽃이었
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고니아와 장미와 글라디올러스와 같은 귀화식물 계
통의 화초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요즘 도시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모더니스
트의 취향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좋아하는 꽃을 물어보면 귀화종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